

사역자의 노후 대비와 국민연금제도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

Abstract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이룩하려면 일생 전주기 관점에서 생애주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애 전체의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감안하여 일생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선교사, 중소 교회 사역자들의 경제적 노후준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이해하고 이를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이 보조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도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후준비제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임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제공하였다. 사역자의 효과적인 노후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계 각 기관들이 수행할 역할들이 있다. 우선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들과 부교역자, 개척교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역자들에게 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과 노회들은 이러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형 교회, 재단들의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은 가장으로서 가정과 미래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노후준비, 생애주기 재정계획, 연금제도, 국민연금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모든 사람은 일생에 걸쳐 돈을 벌며, 이를 소비한다. 각 인생의 시기에 따라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하는 소비가 일치한다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개 청년을 지나 중년의 시기에는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 잉여소득이 발생하지만, 노년, 특히 직장을 은퇴한 이후에는 필요한 소비에 비하여 버는 소득이 부족하여 결핍이 발생한다. 따라서 젊은 시절의 잉여소득을 노년 소득결핍에 충당하도록 일생의 재정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라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통하여 일생동안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빈곤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재정지식이 없는 분들은 체계적으로 노후준비를 설계하기가 어렵게 된다.

교회의 목회자들도 일부 예외적으로 고소득을 버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 편이며, 특히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나 해외 선교사들은 사역에만 집중하여 노후준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노년에 이르러 빈곤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평생 신실하게 헌신하여 온 분들의 노후를 교회나 선교지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 문제이다.

성경에서도 다른 백성과 달리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 즉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십일조를 거두어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민수기 18:25-32). 레위인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성전을 떠나 밖으로 돌아가는 일도 발생하였다(느헤미아 13:10). 따라서 소규모 교회나 선교사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중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또는 기타 분야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노후에 가장 기초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등을 통하여 어떻게 기초적인 노후준비를 도모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목회자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있어왔다. 일찍이 정부에서는 성직자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유희원과 한신실(2016)에서 성직자의 노후보장 실태를 분석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여기에서 성직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오근혜와 황인태(2020)은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경제적 노후 준비가 부족하며, 체계적인 재정 교육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황인태와 오근혜(2023)은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목회자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사례를 통해 체계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 모델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국민연금이 성직자들과 목회자들의 노후준비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효과적인 제도를 성직자들이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들이 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선복(2020)은 종교인 소득 과세가 성경적 원칙과 부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무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 목회자들의 소득세 계산과 신고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후를 위한 다양한 재정 준비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임을 제안한다. 따라서 우선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여력이 있는 경우, 다른 투자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저자 개인적인 견해이며, 모든 분들에게 항상 최선의 대안이 아닐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적인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는 신실한 목회자들에게는 작위적인 계획처럼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래를 준비한 요셉의 지혜로운 계획(창세기 41장 등)을 볼 수 있으며, 망대를 세우는 데에도 계획이 필요함(누가복음 14:28)을 말씀하고 계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회적 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제2장에서 일생의 재정계획과 연금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가입 및 혜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제4장에서 요약하고 맺는다.

II. 일생의 재정 계획과 투자 대안

2.1 일생의 재정계획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 신앙적 목표, 교육적 목표, 도덕적 목표 등이다. 그 중에서 가정의 경제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재정계획의 첫걸음이다. 즉 ‘돈을 벌 때,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가?’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적 목표가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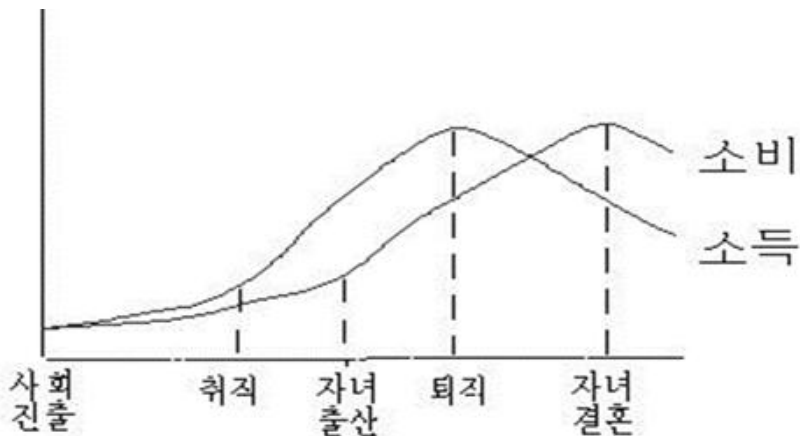
“머니 머니(뭉니 뭉니) 해도 머니(Money)가 최고야!”

그러나 가정 경제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안정성’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경제적 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재정적 안정성’에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재정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자들은 일반 가정들보다 재정적으로는 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 하나가 실패하면 기업이 줄도산하여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면 재산의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 경제의 첫째 목표를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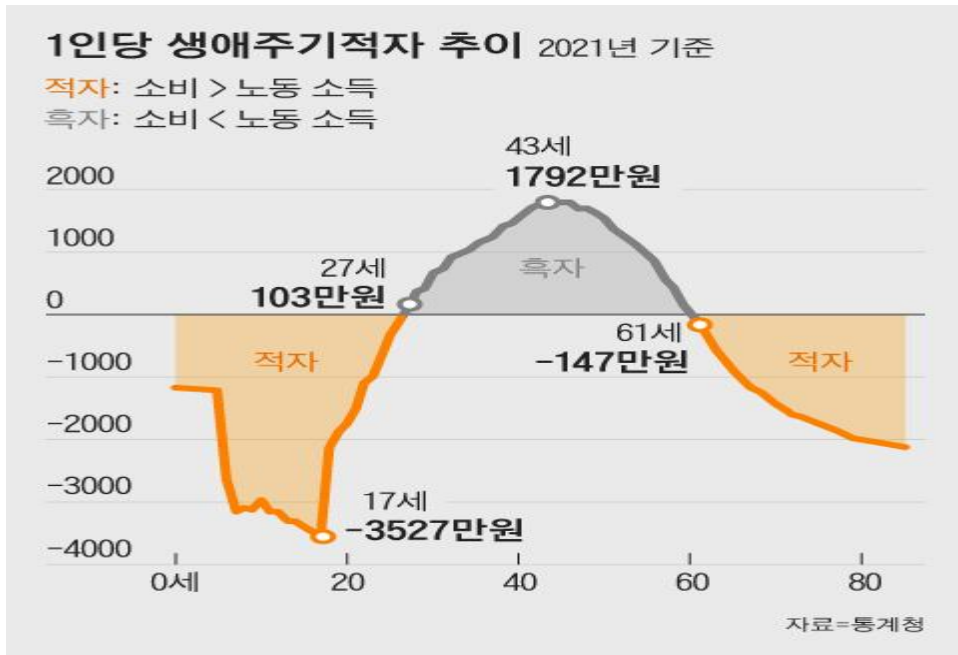
가정 또는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려면, 우리 일생 전체 주기에서 수입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중년 시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서 잉여 자금이 생기지만, 은퇴 후 노년에는 수입이 줄어들어 소득이 소비보다 낮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일생의 소득과 소비의 흐름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7세 이전에는 버는 소득이 소비금액보다 적어 적자인데, 20대 후반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여 흑자를 보이다가, 은퇴하는 시기인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생 소득과 소비의 흐름



출처: “현역 땀 잘 나갔는데...” 노후에 가난해진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조선일보 2023.12.14.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경제학자 프랑코 모디글리아니(Franco Modigliani)는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 현상이 우리의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현재에 소득이 많아도 미래 소득이 줄어 들 것이 예상되면, 현재 소비를 줄여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소비가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 또는 평생소득가설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일생 전주기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재정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청·중년 시절의 잉여 현금을 노년 시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래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생애주기 재정계획(Life-time financial planning)이라고 한다. 자신의 생애 전체의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감안한 재정계획이 일생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요새 젊은 세대의 소비 풍조는 미래소득을 감안하여 현재 소비를 결정한다는 위 평생소득가설과 다른 듯하다. 우리 세대는 허름한 중고차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큰 고급차부터 사기 시작한다. 고급 리조트에 가면 어린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우리 세대보다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다.

이들을 YOLO(You Only Live Once)세대라고 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잘 대접하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살 때 멋지게 살자는 생각이다. 지금 번 돈을 지금 다 써버리면 노후에는 어떤 돈으로 살아가나? 그래서 지금 연봉만으로 부족하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투기적 유혹에 휩쓸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시절은 ‘소비’하는 때가 아니라 ‘투자’하는 때이다. 돈도 지금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경력관리와 학습을 통하여 미래에 투자하여야 한다. 그래야 밝은 미래가 있다. 이처럼 일생에 걸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애주기 재정계획 측면에서 미래 노후 대비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2 장기 투자 대안에 대한 비교

2.2.1 투자의 기본 원리와 대안

투자(投資, Investment)란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투자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돈(때로는 시간과 같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의 소비를 참고, 미래에 더 큰 소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현재 소비의 연기라고도 한다.

투자는 기간에 따라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가 있는데, 투자라고 하면 대개 수년간 투자를 유지하는 장기 투자를 말한다. 따라서 투자금 투입에서 회수에 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고, 이에 따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좋은 투자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 투자 대안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²⁾

장기적인 투자는 특정 자산에 장기간 동안 투자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투자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장기적인 투자 대안이 있으며,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축: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수익률의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수단이다. 저축은 안정성과 환금성이 높은 안전한 투자이지만,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채권 투자: 정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채권은 정해진 기간에 정액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부도가 날 위험도 있다.

주식 투자: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기 투자 전략이다. 이는 기업에서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받고,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익을

2) 투자 대안의 종류와 연금의 종류 부분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얻을 수 있다. 주식은 변동성이 높고 기업별로 차이가 많아 위험성이 높고, 적절한 종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다. 부동산은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환금성이 낮아 쉽게 사고 팔기 어렵다는 데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택, 상업용 부동산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펀드 투자: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전문 관리자가 운용하는 자산이다. 주식 펀드, 채권 펀드, 혼합 펀드,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의 투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역시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

연금 계획: 개인의 장래에 대비하여 연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의 한 형태이다. 연금 계획은 퇴직 후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장기적인 투자에서 다양한 자산을 혼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연금 및 기타 자산 클래스를 조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만들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다만, 적절한 투자 조합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인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성장을 고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Risk)이 따르므로 신중한 계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세한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투자 대안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투자 대안별로 위험도와 예상 평균 수익률이 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위험도가 낮은 투자안을 예상 평균 수익률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안은 예상 평균 수익률이 높다.

투자에서 위험도는 수익률의 분산으로 측정한다. 정기예금은 3%로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정확히 3%의 이자를 준다. 이는 수익률 분산이 0이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투자 시에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도 3%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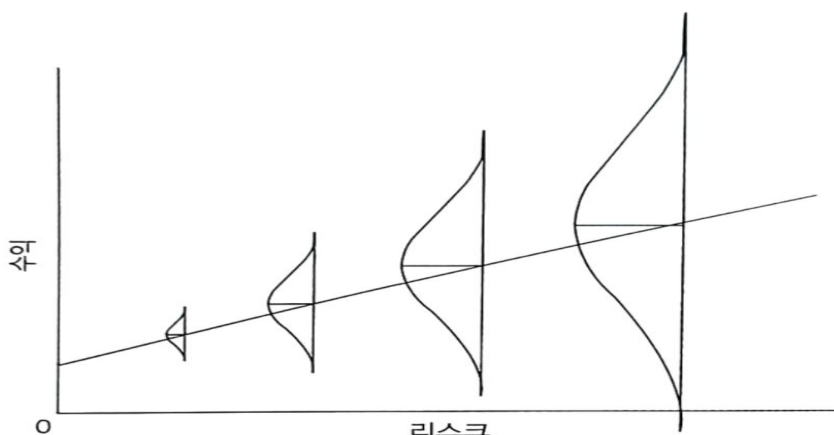
그러나 주식은 오르면 100%도 오르고 내리면 -100%가 될 수도 있어서 이후에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 폭, 즉 분산이 매우 크다. 수익률의 분산이 크다는 것은 이익만이 아니라 손실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에서는 수익률의 분산으로 위험을 측정한다. 그런데 위험이 높은 주식 투자는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은 정기예금의 3%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위 투자 대안들을 비교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정기예금 - 채권투자 - 주식투자 - 부동산 투자

순으로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평균적인 예상 수익률도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평균적인 예상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후에 실현되는 확정 수익률과는 다르다. 투자 대안 별 전체의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이지, 내가 투자한 특정한 투자의 확정 수익률이 아니다.

아래 그림은 위험(Risk)과 수익률(Return)의 비례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³⁾ 첫 번째 투자안은 수익률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 위험(분산)이 낮는데, 예상 수익률도 낮다. 네 번째 마지막 투자안은 잘만 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을 수 있으나 잘못하면 0 이하로 떨어질 높은 위험(분산)의 투자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투자안들의 전체의 평균은 왼쪽 안전한 투자안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인 주식투자를 보면, 모든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주식은 높이 상승하지만, 일부 주식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3>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



그러니 주식투자를 할 때는 -100% 깡통 차는 주식이 아니라, +100% 오르는 대박 주식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확정적인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대안을 고를 때 그 투자의 위험도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예상 수익률과 비교하여 보고, 내 부담능력과 재정적 여유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에서 가정 중요한 원리가 “High Risk, High Return (고위험, 고수익)”이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접근하여 오는 투자 대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https://brunch.co.kr/@hong8706/245>

2.2.2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연금제도는 노후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을 모아 적립한 후, 퇴직 또는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투자방식이다. 각 국가나 지역마다 연금제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아래는 주요 연금제도의 종류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공적 사회 연금 (Social Security):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공공적인 연금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며,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국가마다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다.

기업연금 (Employer-Sponsored Pension):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연금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이 협력하여 연금을 적립한다. 소속된 기업이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매칭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연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DB형)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퇴직금액이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형) 두 종류로 구분된다.

연금저축 (Individual Pension): 개인이 자신의 퇴직에 대비하여 개설하는 연금계좌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금하거나 투자하여 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모으는 제도이다.

연금보험 (Pension Insurance): 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퇴직 시 정기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원금을 보장하거나 투자 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 저축이나 연금보험은 사적 연금인데, 가입자는 다음에 설명하는 IRP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Accounts: 노후를 위한 재정안전망): 공적연금제도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제도로 1994년에 도입되었다.⁴⁾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과 연금보험이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이라고도 하며, 납입단계에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3.2%(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연금수령단계에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데, 55세 이후에는 종신 동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는 세제 비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이 없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직 중 납부하는 소득세가 적은 저소득자는 연금저축보

4) 미국에서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적인 퇴직 계정)으로 부른다.

다는 연금보험이 유리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Government Pensions):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퇴직 시에 정기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슷한 제도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자율연금 (Private Pensions): 기업이나 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일반적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특정 자금을 적립하고 정기적인 연금을 지급한다. 일부 교단의 은급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3년도의 경우 부부가구는 월 34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정보보조금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드리는 정부보조금으로 2023년도의 경우, 월 30만원을 약간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향후 40만원까지 증액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국가 및 기업의 특성, 법적 규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퇴직 후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은퇴준비를 위한 3층 연금체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안이 있는데, 이중 안정성이 있고, 개인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수익성도 웬만하여 무난한 투자 대안이 연금이다. 연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연금 또는 공공연금제도이다. 일반적인 연금, 저축, 투자 등의 수익과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지만, 국가 공공연금제도는 가입기간과 횟수가 중요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순서를 열거하여 보면,

- 1) 교단 등에서 제공하는 은급보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 2) 국가연금인 국민연금을 우선 가입한다.
- 3) 여유가 있다면 다른 연금제도 또는 추가적인 투자 대안을 찾는다.

가장 먼저 국가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시작이고, 기초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세계은행이 제시한 3층 연금체계와 유사하다. 세계은행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결합하여 유지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⁵⁾

5) 세계은행의 1994년 보고서 「노년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을 통해 3층 연금체계가 제시되었다.

여기서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보장제도이며,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업보조제도, 개인연금은 좀 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의 준비제도이다. 아래 그림은 국가 제도적 측면이라서 국가보장을 기초로 하고 있고, 본 논문의 제안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은급제도를 허물지 말라는 의미에서 1단계로 제시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4> 은퇴 준비를 위한 3중 연금체계



Ⅲ. 국민연금과 노후준비 방안⁶⁾

3.1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

6)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다.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그렇기에 성직자들도 가입대상인데, 이를 잘 몰라서 가입률이 높지 않아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이나 투자수단에 비하여 저소득층에 유리한 다른 특징이 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일반 사적 연금은 불입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저소득 계층"의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한 연금제도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매년 1월부터 전년도와 전년도 전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3.2 국민연금 활용방안

3.2.1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의 가입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된 사업장과 가입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한다. 즉 기업, 기관, 단체 등 종업원을 고용한 조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등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있다.

–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들의 배우자가 소득 없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위 가입자 종류를 볼 때, 교역자나 선교사들께서는 교회 등 고용기관에서 가입을 허락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허락이 어려우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고용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주는 이점이 있는데,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⁷⁾ 한 사람이 가입하여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3.2.2 가입 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국내 1355, 해외 +82-63-713-6900,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교사들의 경우, 소득과 사업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연금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를 연금급여라고 한다.

연금급여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7) 종교인 과세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문이나, 참고문헌에 제시된 이선복(2020)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다.

대표적인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1-65세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표 1> 연금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 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 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 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 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 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 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3.2.4 납부할 보험료 금액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text{연금보험료} = \text{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2.5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소득이 높지 않은 교역자들께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면 납부할 보험료가 대개 월 9만원부터

8) 기준소득월액이 2024년 7월 1일 인상되었다.

시작하게 된다. 매월 납부액은 소득 수준별로 달라지며,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그리고 물가 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달라진다. 2023년도 가입자에 대한 소득수준별 보험료와 가입 기간별 예상 연금액은 다음과 같다.⁹⁾

<표 2> 소득구간별 월 보험료와 예상 평균(노령)연금액
(2023년 신규가입자 기준)

월 소득	월 보험료	10년 가입	20년 가입	30년 가입
100만원	9만원	196,670원	389,720원	582,780원
300만원	27만원	298,540원	591,600원	884,650원
400만원	36만원	349,480원	692,540원	1,035,590원
500만원	45만원	400,420원	793,470원	1,186,530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가입 시 가급적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유하고 있다. 위 표를 보면 월 9만원을 부부 둘이 불입하면 받는 연금이 월 45만원을 한 사람이 불입하는 것과 유사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어 1인 고액보다는 2인 저액으로 가입함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이다.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¹⁰⁾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이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는 분들은 받았던 일시 퇴직금을 반환하거나, 중간에 공백이 있어 미납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납하여 가입기간을 늘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있다. 여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¹¹⁾

3.3 기타 노후 생활자금 마련 수단

3.3.1 주택연금

노후에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연금제도와 유사한 것이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제도가

9) 2024년도에는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연금액이 3.6% 인상되었다.

10) 부부 동시 가입의 이점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강석기 소장의 유튜브 강의안을 참고할 수 있다.

11) 여기에서는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 가입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인태·오근혜 2023 논문 참조)

있다. 이 제도들은 주택 또는 농지를 담보로 분할 대출을 받는 것이기는 하나, 주택 또는 농지의 가치에 무관하게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다른 방법은 재취업하거나,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도 있고, 자녀들로부터 보조를 받는 방법도 있다.

주택연금만 만 55세 이상인 부부 중 1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일종의 대출금을 지급한다. 사망 후 주택을 경매하여 일시 상환을 하는데,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 가격과 청구 시 나이를 감안하여 월별 대출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신청 당시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른 2024년 현재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표 3>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종신지급방식, 2024. 1월 기준, 단위: 만원)

연령	주택 가격						
	1억	3억	5억	7억	9억	10억	12억
50세	11	33	56	79	101	112	135
60세	20	61	102	143	184	204	245
70세	30	90	150	210	270	300	331
80세	47	142	237	333	397	397	397

3.3.2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

선교사들 중에 현지 국적을 취득한 분은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각국의 연금제도를 참조하려면 연금공단의 해외 국가의 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¹²⁾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중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또는 기타

12) 국민연금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https://www.nps.or.kr/jsppage/info/worldwide/worldwide_01_01.jsp

분야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기초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이 보조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후준비제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임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제공하였다.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인)는 넘어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23-26)”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약속하신 바 있다. 사역자들이 재정관리보다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최소한의 준비를 위하여 사회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회와 선교단체도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교계 각 기관들이 수행할 역할들이 있다.

우선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들과 부교역자, 개척교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역자들에게 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과 노회들은 선교사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형 교회와 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안심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는 선교사, 사역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은 가장으로서 가정과 미래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경제적 지식이 많지 않은 사역자들의 재정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아무쪼록 본 논문이 소득이 높지 않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노후 준비와 사역의 활력을 위하여 작은 기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이선복(2018). 교회 내부통제제도와 회계감사에 관한 소고, 로고스경영연구, 16(1), 31-46,

이선복(2019). 성경적 관점에서 본 회계윤리. 로고스경영연구, 17(1), 1-20.

이선복(2020). 종교인소득 과세의 성경적 의미와 실무 적용방안, 로고스경영연구, 18(1), 166-186,

이선복(2021a), 교회와 선교단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 Excel 활용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9(1), 19-40,

오근혜 · 황인태,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제18권 제2호 (2020. 6.) pp.1-22.

유희원 · 한신실,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12.)

이선복, “종교인소득 과세의 성경적 의미와 실무 적용방안”, 로고스경영연구, 제18권 제1호 (2020. 3.) pp.166-186.

황인태 · 오근혜,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한 목회자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사례를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제21권 제4호 (2023. 12.) pp.149-168.

<추가로 참고할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안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강석기, 국민연금 부부가입, 유리한가, 불리한가?

<https://youtu.be/VLwVErLhmfk?si=cKovtviPhnLdKwbe>

<노후준비에 관한 기사를 전문적으로 연재하는 기사들>

조선일보 이정은 기자 [왕개미연구소]

“나만 돈 없나?” 50대 가장의 평균 저축액 얼마길래, 2024.01.10.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 [언제까지 직장인]

“8700만원 내고, 백세까지 月240만원 탄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은, 2023.12.30.

Retirement Plan for Pastors and Missionaries Us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for households, it is needed to develop a lifecycle financial plan. The lifecycle financial plan is essential to maintain a lifelong financial stability by considering the flow of income and consumption throughout one's lifetim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trategies for preparing the financial retirement of missionar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hurch workers who are in a financially vulnerable state. To this end, this study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and gives explanation about the enrollment and benefit processes associated with it. Furthermore, we elucidated the nuances of retirement pensions subsidized by companies, private pensions devised by individuals, and the fundamental tenets of basic government subsidies and housing pension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national pension, which has an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should be the primary retirement system, and provides detailed practical guidelines for utilizing it. For effective retirement planning for ministers, each church-related organization has a role to play. Firstly, it is imperative that churches are adequately prepared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those in financial need, such as missionaries, associate pastors, and church planters. It is therefore incumbent upon denominations and presbyteries to create institutional mechanisms to assist these individuals, thereby enabling them to focus on their ministries that comes from the support of larger churches and foundations. Finally, as heads of households, ministers must ensure that they have made the requisite provisions for their families and future lives.

Key words : Retirement planning, lifecycle financial planning, pension plans, national pension system